

편의점업체, '소주 값' 자발적 인하

빈병보증금 인상을 발미로 가격을 올린 편의점업체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가격을 내린다.

편의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내 편의점들이 맥주값 인상분보다 값을 더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씨유(CU)는 1월 1일부터 1700원으로 기준가를 설정했던 소주 가격을 1650원으로 내린다. 빈병보증금 인상폭 보다 10원 낮춘 것이다.

맥주 가격의 경우 185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된 가격(50원)이 빈병보증금 인상폭(80원)보다 낮아 별도의 가격 조정없이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세븐일레븐도 빈병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 인상 틈타 가격 올려 여론 못매 맞아

폭과 판매가를 맞췄다.

1월 25일부터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던 소주 가격을 1660원으로

40원 인하했고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맥주는 1980원으로 20원 내렸다.

지에스(GS)25 역시 현재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앞서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1월 10일부터(발주일 기준) 참이슬(360ml)과 처음처럼 가격을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다.

같은날 카스맥주(500ml)는 1850원에

서 1900원으로, 하이트맥주(500ml)는 19일부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렸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편의점들의 가격 인상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초 환경부 주도로 오른 빈병 보증금은 소주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이는 편의점이 올린 소주값 '1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편의점은 소주 1병을 판매할 경우 빈병 보증금 인상에 편승한 덕분에 40원의 마진을 더 남기게 됐

다.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편의점 관계자는 "정부에서 빈병보증금 인상분 만큼만 판매가를 올릴 것을 권고했다"며 "정부 시책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병 보증금은 1월 1일부터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자 편의점들은 일제히 소주와 맥주 가격을 100원 가량 인상해 "빈병보증금 제도를 발미로 수익을 높인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2호' 오픈식을 가졌다.

전북銀, JB희망의 공부방 제52호 오픈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전북은행은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전북은행 두원진 부행장, 김동형 장승로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평화사회복지관 성동화 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평화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해 지난 20여 년간 평화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복지관 일대 아동들에게 각종 학습프로그램과 교육활

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새롭게 지원해 아동들이 마음껏 독서를 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했고,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상호

전개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 두원진 부행장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양한 교육복지혜택을 받아 지역의 인재들로 성장해 나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꿈나무를 키우는 다양한 공헌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프리지아와 함께 향긋한 봄 준비하세요

상큼한 향기와 더불어 봄을 알리는 꽃, 프리지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57%에 달하며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졸업과 입학의 맞아 꽃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국산 프리지아 품종 육성과 보급에 노력한 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화훼 품종 국산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프리지아는 우리나라 절화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는 품목이지만 국산 품종 보급률이 50%를 넘긴 것은 국내 절화류에서는 처음이다.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는 1999년부터 프리지아 새 품종 연구를 추진해 2003년 육성한 '사이니플드' 품종을

국산 품종 보급 57%... 오늘 20계통 · 품종 평가회 열어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3품종을 개발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대표 품종은 2008년 육성한 진노란색 겹꽃 '골드리치'다.

이 품종은 꽃색이 선명하고 꽃대가 길며 재배기간이 짧아 난병비 및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재배농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진한 노란색으로 농가 선호도가 높아 2014년~2015년 16.9%에서 2015년~2016년 28.8%로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

다양한 품종 개발로 국산 프리지아

보급률은 2008년 8.5%에서 2016년 57%로 크게 늘었다. 2014년부터는 외국 품종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월 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화훼 소비 촉진과 새롭게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평가회에서는 그동안 개발한 20품종과 더불어 새롭게 개발한 다양한 꽃색의 향기로운 프리지아 20계통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품종과 계통들은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으로 꽃대가 끝까지 긴 꽃대에 꽃이 많이 피면서 생산량이 많은 특성이 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한 계통(원고 C3-70)은 진분홍색의 겹꽃으로 꽃이 크고 자람새와 꽃대직립성이 강하며 포장에서 바이러스의 발생이 적은 특징이 있어 절화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수출용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화훼과 최윤정 박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꽃 색의 고품질 프리지아 국산품종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며, "간편한 꽃병이 포함된 소형 꽃다발 상품 개발 등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청년리더 70명 선발 해외연수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상반기에 선발한 연구원 및 연수생 38명을 KOPIA센터로 1일 파견한다. 이는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하나로, 해마다 100명 내외로 농업 분야 인재를 선발해 20나라이에 설치된 KOPIA센터에 파견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70명을 파견해 글로벌 농업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KOPIA센터에 파견된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농촌진흥청이 현지 농업 연구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국제적인 농업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해외실습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습 등 전공 능력을 키우고, 주재국의 농업현황을 분석하며 글로벌 농업 환경을 경험한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국제 공용어 및 현지어 감성을 받으며 글로벌 청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조경래 과장은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전문화를 통해 질적 성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교육청, 1000만원 이상 106건 발주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등 195억여원 규모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1천만원 이상 사업 106건을 발주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올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발주 예정인 시설공사·물품·용역 등 총 106개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총 예산액은 195억421만원이며 4월에 발주할 '전북교육연수원 외 1기관 신화관 증축 및 기타 공사'가 23억9,233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예산규모로는 MS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19억원, 한글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13억7,483만원, 익산솔리유치원 설계공모 11억7,288만원 등 3개 사업이 10억원을 넘는다.

월별 발주 물량은 1월에 19건을 발주하고 2월 8건, 3월 14건, 4월 26건, 5월 7건, 6월 5건, 7월 4건, 8월 3건, 9월 5건, 10월 6건, 11월 6건, 12월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 건수는 전체 1천만원 이상 발주 예정 사업의 74.5%인 79건, 예산액으로는 전체 사업 예산의 83.7%인 163억2,429만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농어촌공 전북, AI 확산방지 비상근무

고창 동림저수지 방역초소운영

정부에서 AI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방역초소운영 등 AI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창 동림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매년 가창오리때 등 철새 30만마리가 거처하는 저수지이다. 최근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돼 사람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 확산방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부터 매일 일몰시까지 분부 1명, 정읍지사 5명의 근무반을 편성하고 동림저수지 출입로 2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명절 귀향객, 철새 탐방객 및 사진작가 등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통하여 AI 확산방지 대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준재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AI 확산방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저축은행에 장기예금 돈 몰려

저금리 시대에 목돈 마련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원하는 가계의 여유자금이 저축은행의 장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

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3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8%(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만기가 1년 이하인 정기예금 잔액은 27조6000억원으로 17.4% 늘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2~3년을 기다려도 2% 이상의 이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재용 기자



부안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福